東洋學 第83輯(2021年 4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

황보 경*

국문초록

안성 도기동산성은 발견과 동시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학술적으로나 문화재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삼국시대 성곽이다. 이 성은 백제와 고구려가 축성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목책과 토축, 석축 등 다양한 재료와 기술로 축성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성 내부와 주위에서 백제와 고구려 취락 및 생산시설, 여러 종류의 고분도 발굴되었다. 이제까지의 조사성과로 보아 도기동산성은 4세기에 축성되어 6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기동산성은 안성의 거점성 중 하나로 교통로와 취락, 고분군이 갖추어진 유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삼국시대 초기에 안성천이 마한과 백제의 경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3~4세기 본격적으로 영역 확장을 추진하였고, 안성지역도 복속하여 도기동산성을 축성하였다. 백제가 이 산성을 축성한 목적은 첫째, 한강 이남에서 경기 남부를 거쳐 충남지역으로 진출하기에 적합한 요충지라는 점, 둘째 마한의 잔여 세력을 제압하고 교통로 통제를 하기에 적절한 거점성의 역할, 셋째 안성천변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에서 식량 생산과 수취 획득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475년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한 이후 대전 일대까지 남진하는 과정에서 이 산성도 점유하였다. 고구려 입장에서 도기동산성이 갖는 장점은 첫째, 안성천 유역을 따라 발달한 동~서 교통로를 통해 나제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수취와 식량 획득이 용이한 평야지대라는 점, 셋째 서해안과 인접하여 해상을 통한 백제의 북상 및 중국 교류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넷째 백제의 북진을 방어하기가 적합했기 때문이다.

무령왕은 재위 초부터 고구려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위천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한성을 수복하면서 도기동산성도 다시 운용했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도기동산성은 백제 한성기부터 웅진기까지 운영되었고, 고구려도 일정기간 점유하면서 백제의 북상을 저지하였다.

[주제어] 안성, 도기동산성, 안성천, 백제, 고구려, 마한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안성맞춤박물관에서 열렸던 『안성 도기동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세종대학교 박물관 학예주임 / hbkan@daum.net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백제의 영토 확장과 도기동산성 축성
Ⅲ. 고구려의 남진과 도기동산성 사용
Ⅳ. 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과 도기동산성 활용
Ⅴ. 맺음말

Ⅰ. 머리말

安城 道基洞山城(사적 제536호)은 발견과 동시에 國家 史蹟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학술적으로나 문화재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三國時代 성곽이다.[1] 이 산성은 百濟와 高句麗가 築城 및 修改築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木材를 사용한 木柵과 土築, 石築 등 다양한 재료와 기술로 축성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성 내부와 주위에서 백제와 고구려 주거지, 수혈, 우물 등의 거주 관련 유구는 물론 가마 등의 생산시설, 石槨墓와 土壙墓, 甕棺墓 등의 삼국시대 고분도 발굴되었다.

도기동 일대에 대한 조사는 최근까지 산성과 고분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2014년 도기동 436-1번지에[2]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2015년에 산52번지와[3] 산51-3번지가[4] 발굴되면서 산성의 구조가 일부 확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산51-5번지 일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성의 실체가 파악되었고,[5] 2016년에는 465번지에서도 토루와 주거지, 수혈 등이 발굴되었다.[6] 최근에도 산성의 남쪽 구간인 산57번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7]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분은 도기동산성에 비해 일찍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도기동 유적이 가장 먼저 발굴되어 백제 漢城期 때의 고분이 확인되었고,[8] 산18번지와[9] 산11번지 일대에서도[10] 조사가 진행되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제까지의 조사성과로 보아 도기동산성은 대체로 4세기에 축조되어 6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산성이 사용된 시기를 감안하여, 3세기부터 6세기 초까지의 삼국 정세를 살펴보면서 과연 백제와 고구려가 안성지역으로 언제 진출했었는지 그리고 도기동산성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탐구해 보고자 이 글을 준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3세기부터는 고대국가체제를 이루어 나가던 때로 보고 있으며, 4

1) 안성지역은 면적이 넓고 충청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많은 수의 성곽이 분포해 있는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도기동산성이 유일하다. 그 외 죽주산성과 망이산성, 서운산성이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금광산성과 무양성이 시지정 향토유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
3)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2016a.
4)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1-3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2016b.
5)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山城』, 2018.
6)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65번지 유적』, 2018.
7)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
8) 中央文化財硏究院, 『安城 道基洞遺蹟』, 2008.
9) 누리고고학연구소,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2017.
10)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古墳群』, 2019.

세기부터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문헌사나 고고학 분야에서 이루어낸 많은 연구성과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두 언급할 수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제 한성기와 고구려 남진기, 백제 웅진기 무령왕대 일어났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도기동산성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Ⅱ. 백제의 영토 확장과 도기동산성 축성

백제는 건국한 이후로 내외적인 성장에 힘입어 주변 지역으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三國史記』 百濟本紀에는 溫祚王 재위 기간 동안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馬韓도 병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온조왕대 기록을 모두 당시의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연구자 보다는 후대의 일이 소급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는 연구자가 더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필자는 백제가 경기 남부지역으로 진출한 시기를 검토해 보고, 도기동산성이 언제 축성되었을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백제가 경기 남부지역으로 진출한 것과 관련된 기록 중에 주목되는 지명은 '熊川'이다. 웅천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온조왕대 2회 보인다. 첫 번째는 온조왕 13년(기원전 6)에 기록된 영역 획정 내용으로 '南限熊川'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온조왕 24년(6)에 웅천에 목책을 세운 일이다.

> ○ 8월, 마한에 사신을 보내 천도했음을 알렸다. 국토의 영역을 획정하였다. 북쪽으로는 패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웅천이 경계이며**, 서쪽으로 큰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주양까지이다.[11]

영역 획정과 관련하여 백제는 왕경이 있던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웅천까지를 영역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한왕에게 사신을 보내 알렸다. 그러나, 웅천에 목책을 세웠을 때에는 상황이 달랐다.

> ○ 7월, **왕이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책망하였다. "왕이 처음에 강을 건너와 발을 붙일 곳이 없을 때, 내가 동북방 백 리의 땅을 할애하여 편안하게 살도록 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을 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성과 연못을 크게 만들고 우리 강토를 침범하니, 이것이 어찌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왕이 부끄러워하며 목책을 헐었다.[12]

---

1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13年條 "八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埸 北至浿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12)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4年條 "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 遂壞其柵."

마한왕은 백제가 건국할 때 동북 쪽의 땅을 내주어 거주토록 했는데, 이제와 보답은 안하고 마한의 영토를 침범하였다고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마한왕은 그동안 백제가 천도하거나 주민을 옮겼을 때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백제가 마한의 입장에서 볼 때, 樂浪이나 靺鞨로부터의 침략도 방어해 주는 완충지대 역할도 해주고, 상국으로 대우받는 위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마한왕이 온조왕에게 말한 부분 중에는 백제에 백성들이 많아지고,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과 연못을 크게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는 곧 백제가 낙랑과 말갈을 상대로 의외로 善防하면서 급성장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는 사실을 두고 마한왕이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웅천 일대가 마한 영역에 속해 있거나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13] 또한, 漢山으로 도읍을 옮긴 후인 기원전 8년에 궁실을 새로 지었다는 것을[14]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마한왕이 평소 백제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백제가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는 것은 마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한편, 온조왕조에 등장하는 마한을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目支國으로 보고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천안 직산설이 일찍부터 받아들여져 오고 있으나[15] 그 외 여러 지역도 거론되고 있다.[16]

마한왕이 백제에게 내어준 동북 백 리의 영토는[17]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남쪽으로 오산과 진위천 사이 정도가 된다. 따라서, 온조왕이 설치했다는 웅천책은 마한왕이 내어주었던 영역보다 약간 남쪽인 안성천변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웅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안성천설과[18] 금강설로[19] 나눠져 있으며, 이동설도[20] 제시되어 있지만 필자는 온조왕대의 '웅천'을 안성천으로 보고자 한다.[21]

---

13) 황보경,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白山學報』 106, 2016, 176쪽.

14)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15年條 "春正月 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

15)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92, 243쪽.

16)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천관우는 인천 문학산 일대, 최욱진은 아산 탕정지역, 금강 유역권인 익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千寬宇, 「目支國考」, 『韓國史研究』 24, 韓國史研究會, 1979; 최욱진, 「아산지역 2~5세기 고대유적의 현황과 의미」, 『先史와 古代』 55, 韓國古代學會, 2018; 박찬규, 「문헌을 통해서 본 마한의 시말」, 『百濟學報』 3, 百濟學會, 2010).

17) 마한은 辰韓에게도 동쪽 경계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전하고 있어 당시에 마한이 백제와 진한에게 백 리의 영토를 내어주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높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三韓條 참조). 그리고 마한왕이 백 리의 땅을 내어준 기준은 『史記』에서 제후의 땅은 사방 백 리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司馬遷, 『史記』 卷106, 吳王濞列傳 46). 또한, 위만이 준왕에게 망명해 왔을 때에도 준왕이 그를 博士로 임명하고 백 리의 땅을 주어 서쪽 변방을 지키도록 하였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條). 따라서, 마한왕이 백제나 진한에게 백 리의 땅을 내어준 것은 준왕이 위만에게 영토를 주어 변방을 방어토록 하려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18) 李丙燾, 위의 책, 199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94;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 『百濟史의 理解』, 學研文化社, 1993; 문안식,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2002; 강종원, 「백제의 서남방면 지출」,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한성백제박물관, 2013; 이부오, 「3세기후반 4세기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 『한국고대사탐구』 28, 2018.

19)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일지사, 1976;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記念 韓國史論叢Ⅰ』, 正音文化社, 1985; 李道學,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995;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朴淳發,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2001.

20) 임기환, 「『삼국사기』 온조왕본기 영역 획정 기사의 성립 시기」, 『역사문화연구』 47, 2013.

21) 475년 백제가 熊津으로 천도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웅천은 지금의 금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성왕 13년(491)에 웅천의 물이 넘쳤다는 것과 501년 왕이 웅천 북원에서 사냥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문주왕대부터 금강을 웅천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백제가 웅천까지 영역을 넓힌 때는 언제일까?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바탕으로 본다면, 仇首王과 古爾王대가 주목되고, 近肖古王이 남서지역까지 친정한 것은 『日本書紀』를 참고해 볼만하다.

먼저, 구수왕대 기록 중에는 229년 왕이 한천에서 사냥하였고, 말갈이 우곡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22] 우곡과 우곡성은 여러 번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다루왕 29년(56) 동부에 명령하여 우곡성을 쌓아 말갈의 침입을 방어토록 하였고,[23] 기루왕 32년(108)에 말갈이 습격해 왔다.[24] 그리고 온조왕 34년(15)에 마한의 옛 장수 주근이 우곡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병사 5천 명과 함께 친정하여 토벌하였다.[25] 따라서, 말갈이 습격한 우곡이나 우곡성은 같은 곳으로 여겨지는데, 마한의 옛 장수 주근이 반란을 일으킨 우곡성은 다루왕대 축조되므로 온조왕대 일어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주근의 반란 사건을 후대에 벌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주근이 반란을 일으킨 우곡성을 마한의 맹주국이었던 목지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되고, 그 위치가 천안·직산 이남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26] 그러나, 다루왕대 동부에 명하여 우곡성을 쌓은 것과 말갈이 지속적으로 습격해 온 것으로 보아 경기 북부나 동부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당시에 말갈이 충남 북부지역까지 침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우곡성이 백제의 동(북)쪽 국경의 거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됨으로 이 시기에 백제가 동쪽 방면 즉 北漢江을 따라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이왕은 재위 7년(240)에 新羅를 공격하고, 좌장에 진충을 임명하였으며, 석천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다.[28] 그리고 9년(242)에는 활쏘기를 구경했다. 이러한 고이왕의 군사적 행보는 본격적인 영역 확장의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남쪽 택지에 논을 개간하도록 한 것으로 볼 때도,[29] 한강 이남지역으로 영토가 넓어졌으며, 인구도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30] 한편, 246년 고이왕은 魏와 낙랑 등이 고구려를 침략한 틈을 이용하여 진충을 보내 낙랑의 변민을 습격하여 잡아 왔지만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

2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仇首王 16年條 "冬十月 王田於寒泉 十一月 大疫 靺鞨入牛谷界 奪掠人物 王遣精兵三百 拒之 賊伏兵夾擊 我軍大敗."

23)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多婁王 29年條 "春二月 王命東部 築牛谷城 以備靺鞨."

24)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己婁王 32年條 "秋七月 靺鞨入牛谷 奪掠民口而歸."

25)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34年條 "冬十月 馬韓舊將周勤 據牛谷城叛 王躬帥兵五千 討之 周勤自經 腰斬其尸 幷誅其妻子."

26) 노중국, 「다시 보는 한성백제사」, 『한성백제사 다시보기』, 한성백제박물관, 2017, 44쪽.

27) 주근은 마한의 옛 장수였기 때문에 왕경이나 그 주위보다 변방의 성주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낙랑이나 말갈을 상대하던 국경지역의 성주로 지내다가 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우곡성 위치는 한산 동쪽지역 즉 경기도 동부지역인 가평이나 양평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영일도 우곡성을 동부에서 말갈에 대비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아 춘천이나 양평 방면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서영일, 「漢城時代의 百濟 北方交通路」, 『文化史學』 21, 2004, 231쪽).

28)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尒王 7年條 "遣兵侵新羅 夏四月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秋七月 大閱於石川 雙鴈起於川上 王射之 皆中."

29)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尒王 9年條 "春二月 命國人 開稻田於南澤 夏四月 以叔父質爲右輔 質性思毅 謀事無失 秋七月 出西門觀射."

30) 노중국도 남부지역의 개척과 도작에 따른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盧重國, 앞의 책, 1994, 84쪽).

○ 가을 8월, 위 나라 유주 자사 관구검이 낙랑 태수 유무, 삭방 태수 왕준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 왕은 그 틈을 이용하여 좌장 진충으로 하여금 낙랑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유무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였다. 왕이 침공을 받을까 걱정하여 잡아온 사람들을 돌려 보냈다.[31]

고이왕의 이러한 행보는 북쪽과 남쪽지역으로의 영역확장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낙랑의 변민을[32] 돌려보내긴 했지만, 향후 북쪽 영역에 대한 확장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255년 고이왕은 신라와 괴곡 서쪽과 봉산성에서 전투를 벌여 일진일퇴를 거듭했다.[33]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경기 동부와 남부지역의 교통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남과 광주 곤지암을[34] 거쳐 죽산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이왕대 백제는 북쪽으로 낙랑 영역, 남쪽으로 경기 남부, 동남쪽을 거쳐 충북지역까지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필자는 안성천 유역까지도 백제가 진출했을 것으로 보고자 한다.[35] 물론 고이왕대의 남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36] 화성이나 오산, 안성 일대에는 마한의 일부 세력이 저항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3세기 후반이 되면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고자료로 보아 대부분 3세기 후반부터 4세기초 사이에 백제 한성기의 귀금속과 토기류, 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37] 따라서,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더라도

---

3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尒王 13年條 "秋八月 魏幽州刺史毌丘儉 與樂浪大守劉茂・朔方大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32) 김창석은 당시에 대방군이 실재해 있었기 때문에 낙랑 변민이 아니라 대방 변민을 가리킨 것으로 보았고, 백제가 마한의 북부 제소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았다(김창석, 「원삼국~한성백제기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지역별 접점」, 『접점Ⅲ,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의 고고학적 공간』, 2020, 121쪽).

33)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尒王 34年條 "秋九月 出師侵新羅 與羅兵戰於槐谷西 敗之 殺其將翊宗 冬十月 遣兵攻新羅烽山城 不克."
봉산성은 224년에 축조되었는데, 255년과 266년에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괴곡성도 278년과 283년 공격한 적이 있다. 서영일은 이때의 나제간 충돌기사는 의문점이 있으나, 소백산맥 일대의 소국에 의한 산성 축조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다(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48쪽). 이부오는 266년 봉산성 전투에 성주 直宣이 장사 200인으로 격퇴한 사실로 보아 당시 성주들이 거느린 군단의 규모가 그 정도일 것으로 보았고, 장사들 중에는 인근 읍락인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이부오, 『신라의 영역지배 편성과정과 외위』, 서경문화사, 2019, 151쪽).

34) 최근 광주 곤지암리 일대에서는 원삼국~백제시대 적석총과 주거지, 수혈 등의 대규모 취락유적이 곤지암천을 따라 발굴되고 있으며, 존속시기는 2~4세기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리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구간에서는 지상건물지 1동과 旱田으로 추정되는 경작유구와 벼 및 약간의 보리가 검출되어 주목된다(서울문화유산연구원, 『광주 곤리암리Ⅰ유적』, 2016; 『광주 곤리암리Ⅱ유적』, 2016; 高麗文化財硏究院, 『廣州 昆池岩里 遺蹟』, 2017; 우리文化財硏究院, 『廣州 昆池岩里 156番地 遺蹟』, 2017; 기남문화재연구원,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11).

35) 강종원은 고이왕대 천안, 아산 방면에 있던 목지국이 병합되어 차령산맥 이북지역이 영역화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강종원, 앞의 글 참조, 2013).

36) 이부오는 고이왕이 238년에 釜山에서 50일 동안 사냥을 하고 돌아온 일에 대하여 백제가 이미 웅천 이북에서 최소한 일부 세력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켰을 것으로 보았다(이부오, 앞의 글, 2018, 187쪽).

37) 서현주는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은 중요 위세품이 많지 않고 토기의 변화양상으로 보아 늦어도 4세기부터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직접지배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서현주,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한성백제박물관, 2013, 124쪽). 한편, 김길식은 취락과 분묘, 제철 유적 등으로 보아 3세기 후반~4세기 무렵에 백제가 화성・오산 등의 경기 남부지역으로 진출했다고 보고 있다(김길식, 「경기남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의의」, 『화성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화성시, 2016). 또한, 화성 길성리 토성이 3세기 후반~4세기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축조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보인다(한신대학교박물관, 『華城 吉城里土城Ⅰ』, 2010; 中部考古學硏究所, 『華城 吉城里土城』, 2013).

고이왕대 마한의 여러 소국이 귀부했을 것이고, 도기동산성이 위치한 안성천 일대도 그 영향권에 놓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근초고왕은 백제사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외교와 영역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근초고왕이 고구려와 전투를 벌인 기사뿐이어서 남쪽으로 언제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 갔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근초고왕 21년(366)과 23년(368)에 신라로 사신과[38] 양마 2필을 보냈다는[39] 것으로 보아 고이왕대와는 달리 신라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였다.[40] 반면, 고구려와는 369년부터 375년까지 전투를 벌였고,[41] 『日本書紀』 神功紀條를 참고한다면 369년에 마한의 잔여세력을 복속하고 전남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보여진다.[42] 371년 근초고왕은 平壤城 전투에 태자인 근구수와 친정하여 승리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은 후 사망하게 된 일화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으며,[43] 전투 결과로 인해 백제의 영역은 臨津江을 넘어 黃海道 일대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두 나라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 배경에는 낙랑과 대방의 멸망에 따른 영역 다툼이 목적이었는데, 백제가 선점한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눈을 돌려 영산강 유역까지 세력 범위를 넓혀 나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도기동산성은 언제 축성된 것일까?

도기동산성의 축성시기는 그동안의 조사성과로 볼 때, 성벽과 주거지 및 수혈 등에서 출토되는 백제 토기와 성벽에서 채취된 시료를 AMS 연대측정한 결과로 볼 때, 4세기 중~후반 무렵을 전후한 시기로 보고되고 있다.[44] 그러나, 일부 연대측정 결과 중에는 3세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초고왕대 도기동산성이 본격 축성된 것은 인정되지만, 초축시기는 소급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산성의 구조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내성 둘레가 1.4㎞, 외성은 약 2㎞에 이르는 대형 산성이었다고 보고되었다.[45] 따

---

38)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1年條 "春三月 遣使聘新羅."

39)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3年條 "春三月……遣使新羅 送良馬二匹."

40)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긴장 관계가 지속되자 신라와의 관계만이라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4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30年條 참조.

42) 『日本書紀』 神功紀條를 근초고왕대의 사건으로 보는 연구자는 이병도, 최몽룡, 노중국, 강종원 등이 있으며, 이와 달리 신공기조 기사가 5세기 중엽의 사실을 각색한 것으로 보는 연구자로 김기섭이 있다(李丙燾, 앞의 책, 1992, 507~516쪽; 최몽룡·심정보 편저, 『百濟史의 理解』, 학연문화사, 1991; 盧重國, 앞의 책, 1994, 117~122쪽; 강종원, 앞의 글, 2013; 김기섭, 앞의 책, 2000, 160~1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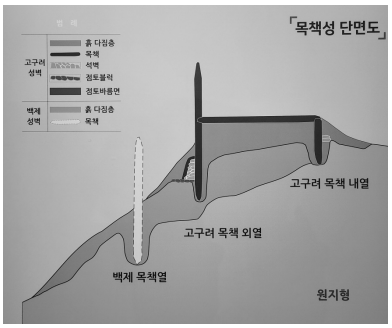
43)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41年條.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6年條.

44) 기남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320쪽.
참고로 도기동 산51-3번지 즉 산성의 북쪽 구간에서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과, 5세기 초부터 7세기 중반으로 측정되기도 했다(세종대학교 박물관, 앞의 보고서, 2016b).

45) 기남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참조, 2018.
도기동산성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축성되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백제가 남진하기 이전까지 마한에 의해 소규모 성이 먼저 축조되었다가, 4세기에 대대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도기동 산52번지에서 발굴된 주거지 중 3호와 4호 주거지는 평면이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잔존 크기가 3호-440×180(?)×5㎝정도이다. 3호 주거지 바닥면은 전체적으로 불에 탄 자국이 있고, 원삼국시대 호와 시루, 발형토기조각이 수습되었으며, AMS측정연대도 1~2세기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구릉 정상부에서 소형의 석곽묘(4호)도 1기 조사되었는데, 비록 부장품이 없어 축조시기를 알기 어렵지만 구조적인 특징으로 보아 3호 주거지나 그 이전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라서, 초축은 백제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구려가 나중에 석축을 가미하여 증개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성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구간에 따라 축조양상이 다르게 확인되기도 하고,[46] AMS 연대측정한 결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사진 1〉 도기동산성과 안성천(서→동)



〈사진 2〉 도기동산성의 목책성 단면도(안성맞춤박물관)

다음으로 백제가 도기동산성을 축성한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는 한강 이남에서 경기 남부를 거쳐 충남지역으로 진출하기에 적합한 요충지라는 점이고, 둘째는 마한의 잔여 세력을 제압하고 교통로 통제를 하기에 적절한 거점성의 역할, 셋째로 안성천변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를 통한 식량 생산과 수취 획득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고이왕이나 근초고왕대 충청지역으로의 남진은 백제의 성장에 따라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경기 남부지역 중 교통로와 함께 군사 요충지로 이용할 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즉 풍납토성 남쪽에는 백제 여러 성들이 분포해 있는데, 도기동산성의 위치가 충청지역으로 진입하는 關門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곳은 안성천이라는 자연해자를 끼고 있으면서 내륙은 물론 西海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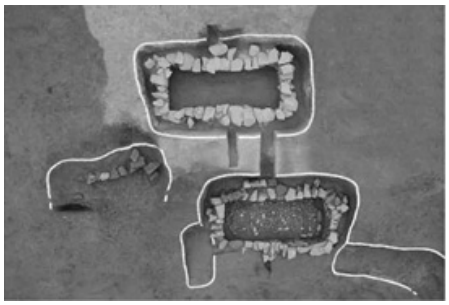
도기동산성 일대에는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하면서 취락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세종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016a; 하문식·황보경, 「안성 도기동 삼국시대 유적의 조사성과와 성격 고찰」, 『世界史속에서의 韓國』, 주류성, 2016, 602쪽). 참고로 삼국시대 목책은 건국 초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 꾸준하게 구축되는데, 대체로 규모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남성골산성의 경우 내곽 둘레가 약 360m이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목책이나 성곽에 주둔했던 군사의 수도 100~3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황보경, 앞의 글, 2016, 184쪽). 따라서, 도기동산성도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지배자와 기술력의 발달로 점차 확대되면서 다양한 축조기술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6) 도기동산성의 축성순서에 대하여 목책이 가장 먼저 조성된 후 토루와 석축이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토성에서 목책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견해, 목주를 중심목으로 사용하여 토루를 조성한 것과 토루를 굴착한 후 목책을 설치한 것으로 견해로 나눠지고 있다(하문식·황보경, 위의 글, 2016;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硏究』 58, 2017; 안성현, 「한성백제기 하남지역 관방체계」, 『하남 역사 총서』 1, 하남역사박물관, 2019, 194쪽).
한편, 김진영은 도기동 산51-3번지의 1호 건물지와 주거지, 제의유구를 기존 토루를 절취하고 조성한 수축부분으로 내벽의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2호 건물지에 대해서는 내목책렬을 감싸 보강하기 위한 시설로 보았다(김진영, 위의 글, 2017). 그러나, 보고서에 수록된 대로 각 유구의 성격을 달리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성벽과 관련된 유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구의 잔존상태와 층위, 출토유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1호 건물지에 출토된 유물 중 대부발과 접시, 기와편은 삼국 이후의 것이고, 제의유구에서도 백제와 고구려 토기 외의 것도 있어서 후대까지 사용된 흔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성벽 시설과 관련지어 보기 위해서는 북쪽 구간 중 미조사구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다.

장점이 있다.

둘째, 3~4세기대까지도 마한의 소국들 중 일부는 백제에 복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반란의 가능성이 상존했다. 비록 온조왕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마한의 옛 장수인 주근의 반란과 온조왕 26년(7)에 마한의 원산성과 금현성이 항복하지 않았다는[47]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경기 남부나 충청지역에서 반란이 발생될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한 거점성이 필요했을 것이며, 도기동산성 규모와 고분의 매장 수로 보아 많은 병력이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안성천변은 지금도 경기 남부의 곡창지대 중 한 곳이며, 삼국시대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이러한 장점은 세종 나성동 백제 취락유적과도 비교될 수 있겠는데, 도기동 일대에도 안성천변을 따라 여러 취락군이 발달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48] 아직까지 경작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의 남쪽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거지는 물론 저장을 위한 수혈 유구 그리고 석곽묘와 토광묘 등의 고분에서 농공구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49] 살포도 출토되었다.[50] 농공구류와 살포는 피장자가 평상시 농작물의 경작과 수확을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 도기동 산18번지 백제 고분

〈사진 4〉 도기동 산18번지 백제 고분 출토유물

참고로 도기동산성 주변에서는 도기동 유적을[51] 비롯하여 도기동 산11번지와 산18번지,[52] 산31-2번지[53] 등에서 백제 석곽묘와 토광묘가 최근까지 156기가 발굴되었고, 최소 500기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하는 유적으로는 오산 수청동과[54] 청주 봉명동·신봉동 고분군이 있는데, 도기동 고분군도 그에 버금하는 규모이

47)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6年條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幷其國邑 唯圓山·錦峴二城固守不下."
48) 안성지역의 유적군이 도기동과 진사리, 지제동 일원 권역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기남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311쪽 참조).
49) 도기동 유적의 백제 토광묘 38기에서 출토된 철기류 41점 중 농공구류가 20점(48.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中央文化財硏究院, 앞의 보고서, 2008).
50) 도기동 산18번지 유적의 2호 토광묘에서 살포 1점이 출토되었다(누리고고학연구소, 앞의 보고서, 2017).
51) 中央文化財硏究院, 앞의 보고서, 2008.
52) 누리고고학연구소, 앞의 보고서, 2017.
53) 기남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9.

기 때문에 그 위상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55]

Ⅲ. 고구려의 남진과 도기동산성 사용

이 장에서는 475년 고구려의 백제 한성 함락부터 500년 사이에 벌어졌던 삼국의 정세와 전투 그리고 도기동산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고구려의 남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만큼 여기에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長壽王은 재위 기간 동안 신라와 백제 전투에 2회 親征하였는데, 첫 번째는 468년 왕이 말갈병 1만 명을 동원하여 신라의 실직주성을 공격한 일이었고,[56] 두 번째가 475년 3만 명을 이끌고 백제 한성을 함락한 일이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신라와 백제를 향해 남진정책을 추진했는데, 두 번의 친정도 양국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수왕이 백제를 친정한 배경에는 371년 고국원왕이 백제를 맞아 참전했던 평양성 전투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과 472년 魏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을 비방하면서 고구려 정벌을 요청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근초고왕이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東晉에 사신을 보내[57] 고국원왕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았고, 그 이후부터 감히 남쪽을 돌아보지 못했다고 표를 올린 것에[58] 대한 보복적인 차원도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장수왕은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진하여 한성을 함락하는데 성공했으며, 개로왕을 죽였다.

> ○ 9월,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를 침입하여, 왕이 도읍한 한성을 함락하고, 그 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명을 포로로 잡고 돌아왔다.[59]

장수왕은 백제 한성을 함락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왕은 먼저 개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승려 도림을 백제로 보내 국정을 어렵게 만들도록 했다.[60] 개로왕은 도림의

---

54) 수청동 유적의 목관묘는 주구를 갖춘 것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뉘고, 심발형토기를 비롯하여 원저단경호, 직구단경호, 평저호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 철모, 철부, 철겸 등의 금속류, 재갈, 운주, 등자 등의 마구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조성시기는 3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로 편년되고 있다(이창엽, 「中西部地域 百濟漢城期 木棺墓 變化」, 『先史와 古代』 27, 2007).

55)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古墳群(Ⅱ)』, 2019, 42~43쪽.

56) 장수왕이 신라의 실직주성까지 친정한 목적은 부왕이었던 광개토왕이 5만 명의 대군을 파병하여 신라를 구원한 이후, 나제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저항했을 뿐 아니라, 450년 하슬라의 신라 성주가 고구려 변장을 죽인 일과 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했을 때 구원군을 보냈던 일이 빌미가 되었다. 장수왕은 말갈병 1만 명이라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실직주성을 함락하자, 신라는 같은해 9월 니하에 성을 쌓아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했다(『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56年條,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39年條, 慈悲麻立干 11年條 참조).

57) 근초고왕은 372년과 373년 東晉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전한다(『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7・28年條).

58)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18年條 참조.
『魏書』 卷100, 列傳88 百濟條 참조.

59)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63年條 "九月 王帥兵三萬 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60) 고구려는 신라 소지왕을 암살하기 위해 자객을 승려로 변장시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三國遺事』에 전하는

奸計에 속아 토성을 축조하고, 화려한 궁궐을 건축했으며, 제방도 쌓았다. 또한 가매장되어 있던 毗有王의 무덤을 제대로 곽을 만들어 조영하는 등의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벌였다.[61] 결국, 백제의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노역 징발에 따른 백성들의 민심도 돌아서게 되었다.[62] 도림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자, 장수왕은 곧바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한성으로 친정에 나섰다. 전투 전개상황은 고구려군이 백제 북쪽 성을 공격한지 7일만에 함락하고, 남쪽 성으로 옮겨 공격한 끝에 도주하려는 개로왕을 고구려 장수들이 잡아 아차성 아래로 묶어 보내 주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3] 『日本書紀』에는 개로왕뿐 아니라 왕비와 왕자 등도 죽었다고 전하며,[64] 장수왕은 남녀 8천 명을 잡아 돌아갔다.

한편, 문주는 개로왕의 지시에 따라 신라로 가서 구원병 1만 명을 데리고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부왕이 피살된 직후였다. 결국, 10월에 문주는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하고, 한강 유역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시켰으며,[65] 궁실을 중수하였다. 장수왕은 한성 함락 후 평양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병력을 남겨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금강 유역까지 南進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문주왕이 476년에 宋에 사신을 보내려고 시도했으나, 고구려군이 길을 막았다는 것으로 보아 한성기 때 이용하던 항구는 물론 충남지역에서 출발한 선박도 고구려 수군의 감시와 방해로 중국으로 항해하지 못했다.[66] 또한, 서울 아차산과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 서울 강북지역 일대에 축조된 고구려 보루를 통해서도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 많은 수의 관방 유적이 축조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67]

문제는 고구려가 475년 이후에 20년동안 백제와 충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록상으로는 말갈이 482년에 백제의 한산성을 공격한[68] 전후로 고구려의 공격 대상은 신라였다. 480년에 말갈이 신라의 북변을 침략하고, 481년에도 고구려와 말갈이 함께 신라의 호명성 등 7성을 함락하였으며 미질부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484년 고구려가 다시 신라의 북변을 침입하였는데, 이때는 백제도 참전하여 모산성에서 물리쳤다. 고구려가 다시 백제를 공격한 때는 495년 치양성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공격의 배경에는 494년 고구려가 살수에서 신

射琴匣 설화가 있어 참고가 된다(張彰恩, 「新羅 炤知王代 對高句麗關係와 政治變動」, 『史學硏究』 78, 2005). 이로 보아 장수왕은 군사적인 공격에 앞서 백제와 신라의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승려들을 간첩이나 자객으로 활용했다고 생각된다.

61)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條 참조.

62) 475년 백제의 한성이 고구려군 공격으로 함락될 처지에 놓이자, 개로왕이 자책하며 백성은 약하고 군대는 힘이 없어 누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을 개탄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한성에 살던 백제 주민들의 민심이 이반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條 참조).

63)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條 참조.

64) 『日本書紀』 卷14, 雄略紀 20年條.

65)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한북의 주민들을 이주시켰다(『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2年條 "春二月 修葺大豆山城 移漢北民戶").

66) 백제가 다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한 때는 동성왕 2년(480)이지만, 484년에도 내법좌평 사약사를 파견하려 했으나, 서해에서 고구려 수군을 만나 건너가지 못했다(『南史』 4, 齊本紀 上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6年條 참조).

67)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고구려 군사 유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논저가 있다(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2005; 양시은, 『高句麗 城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최종택,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高句麗渤海硏究』 50, 2014; 윤성호, 「고구려의 남진의 흔적,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고구려와 한강』, 한성백제박물관, 2020).

68)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4年條 "秋九月 靺鞨襲破漢山城 虜三百餘戶以歸."

라와 교전할 때 백제가 3천 명의 구원군을 파견했던 사건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69] 따라서, 고구려는 475년 한성 함락 이후에 482년 말갈을 동원하여 한산성을 공격한 일을 제외하면, 495년까지 직접적으로 백제를 공격하지 않았다. 백제도 고구려에 대하여 무령왕 즉위 때까지는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0] 그러나, 한강 유역부터 금강 유역까지 발굴된 고구려 관방 유적이나 고분은 문헌기록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사용하거나 축조한 유적을 보면, 도기동산성을 비롯하여 서울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 성남 판교동 석실묘, 용인 동천동·보정동 석실묘, 마북동 주거지 등으로 적지 않은 수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물론 조영시기와 주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고분의 경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사이이고,[71] 토기들도 대체로 그 시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금강의 북쪽에 위치한 세종 남성골산성과[72] 갑천의 동쪽에 인접한 대전 월평동 유적이[73] 중부지역에서 확인된 최남단의 고구려 유적이다. 두 유적도 백제 한성기에 먼저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증개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강 이남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유구와 유물 그리고 충남지역에서 발굴된 관방 유적 사이에 위치한 도기동산성은 고구려의 남진시기에 수축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도기동산성을 사용한 시기는 언제이고, 목적은 무엇일까?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한 이후에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를 쫓아 금강과 갑천 유역까지 남진하여 웅진의 북쪽과 동쪽 일대를 포위한 형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495년까지 두 나라 사이에 충돌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482년에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하여 3백여 호를 사로 잡아갔다. 이 기록에서 언급한 漢山城을 한강 이북쪽 또는 충남지역으로 보고 있지만,[74] 대체적인 말갈의 공격 방식은 대부분 공격대상지를 점령하지 않고 습격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말갈의 한산성 공격은 고구려의 지시에 의한 습격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다.

---

69)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3年條 "秋七月 我軍與新羅人 戰於薩水之原 羅人敗 保犬牙城 我兵圍之 百濟遣兵三千侵 新羅 我兵引退."

70) 문헌이나 고고자료 상으로 동성왕대 등장하는 한산 또는 한산성에 대한 기록은 한강 유역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鄕土서울』 66, 2005; 최종택,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百濟硏究』 47, 2008).

71) 白種伍,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硏究』 35, 2009.

72) 忠北大學校 博物館,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中原文化財硏究院,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8.
참고로 정운용은 남성골산성이 당시에 백제가 한강 유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충주, 중원지역으로의 진출에 따라 축조한 것이며, 점유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정운용, 「淸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築造와 運用」, 『東北亞歷史論叢』 39, 2013).

73)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대전 월평동유적』, 1999.

74) 한산성의 위치에 대해서 양기석은 차령산맥 이남, 김현숙과 최종택은 동성왕대 한산을 충남 천안시 직산읍으로 비정했고, 장창은은 한강 유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양기석, 「5~6세기 百濟의 北界」, 『博物館紀要』 20, 2005, 30~33쪽;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229쪽; 최종택, 앞의 글, 2008, 145쪽;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127쪽).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신왕 4년(395) 11월에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청목령 아래까지 도착했으나, 폭설로 인해 회군하여 한산성에서 군사를 위로했다고 전한다. 이때의 한산성은 한강 이북에 있던 산성이 분명하다(『東國輿地備考』에는 북한산의 중흥동고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명 이동이 되지 않은 이상 말갈이 습격한 한산성은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성왕조에 웅천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때의 웅천은 금강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문주왕이 476년에 한강 이북의 주민들을 이미 대두산성으로 옮긴 상태에서 삼근왕때인 478~479년에 해구가 반란을 일으켰던 대두성을 두곡으로 옮겼다는 것으로 보아 성이나 하천의 명칭을 일부 옮겼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한다.

말갈이 갑자기 한산성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481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의 호명성 등을 함락하고 미질부에 진출했을 때, 백제와 가야군이 참전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 ○ 3월,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에 들어와서 호명 등 일곱 성을 빼앗고, 다시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는 백제 및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방어하였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자 그들을 니하 서쪽까지 추격하여 격파하고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75]

즉 고구려와 말갈이 상당한 병력을 동원하여 호명성 일대 성들을 함락하고, 신라 왕경 부근인 미질부까지[76] 공격하자,[77] 신라는 백제와 가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두 나라가 참전하여 고구려군과 말갈을 물리쳤는데, 니하까지 추격하여 1천 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반대로 이 전투를 벌인 고구려와 말갈은 신라의 왕경 인근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백제와 가야의 참전으로 패하고 말았다. 고구려는 이 전투를 계획했겠지만, 병력의 구성은 고구려군보다 말갈인의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상자 대부분도 말갈인일 가능성이 높다.[78] 따라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말갈은 고구려의 승인 아래 이듬해 백제 한산성을 습격하고, 포로들을 잡아간 것으로 보인다.[79]

그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484년 신라의 모산성에서 벌어진 삼국의 전투이다.

> ○ 7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하므로 우리 군사와 백제 군사가 모산성 아래에서 연합하여 공격해서 크게 이겼다.[80]

이 전투를 계기로 羅濟는 485년부터 본격적으로 築城과 수리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81] 신라는 구벌성을 축성하고,[82] 486년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개축했으며, 같은 해 백제는 우두성을 쌓았다.[83] 그리고 나제 모두 왕이 군대 열병식을 행함으로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고구려에 대한 결전의 의지를 보이는 계기를

---

7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條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76) 미질부는 지금의 경북 포항시 흥해읍으로 추정되고 있다.

77) 정운용은 고구려가 중원 거점에서 '新羅土內幢主'가 있던 지역으로 一隊의 군사를 진공시키고, 말갈은 신라의 실직·하슬라 거점을 고립시킨채 동해안선을 따라 침공하여 흥해에서 합군, 경주를 압박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硏究』, 白山資料院, 1995, 459쪽).

78) 468년 장수왕이 신라 실직주성을 함락할 때도 1만 명의 말갈병을 동원한 바 있다.

79) 이강래는 삼국 각축기 말갈의 군사활동이란, 고구려에 부용된 것이고, 고구려의 남방한계가 곧 말갈의 활동범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李康來,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領土問題硏究』 2, 1985, 65쪽).

80) 『三國史記』 卷3, 炤知麻立干 6年條 "秋七月 高句麗侵北邊 我軍與百濟 合擊於母山城下 大破之."

81) 신라와 백제는 468년 장수왕의 실직주성 친정 이후 신라가 니하에 성을 쌓았고, 470년부터 474년사이에 삼년산성과 모로성 등을 축조하였다. 백제도 469년 고구려의 남변을 침략한 직후에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목책을 설치한 바 있다.

8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7年條.

8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8年條: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8年條.

마련했다. 따라서, 고구려의 백제 압박은 475년 이후부터 484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495년 고구려가 치양성을 포위한 때까지 이루어졌다.[84] 특히 백제의 성을 고구려가 공격한 것은 475년 이후 495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20여년동안 고구려는 주로 신라와 교전을 벌이면서 백제 방면으로는 충남 일대까지 남진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백제는 공주와 주변 지역에 우두성을 비롯하여 490년에 사현성과 이산성을 축조하였고,[85] 493년에는 신라와 혼인동맹을 결성하면서[86] 고구려 남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의 한성을 함락한 이후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를 압박해 남진을 진행했고, 웅진 이북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기록에 남길 정도의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기습이나 단기간의 국지전을 전개했을 개연성이 높다. 고구려는 한강 이남으로 남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성곽이나 보루를 축조하기 보다 기존에 백제가 사용했던 곳 즉 도기동산성이나 월평동유적과 같이 재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87]

도기동산성은 고구려에게 있어서 유용한 성곽이었기 때문에 남진시 재사용하여 거점화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첫째, 안성천 유역을 따라 발달한 동-서 교통로를 통해 羅濟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수취와 식량 획득이 용이한 평야지대라는 점, 셋째 서해안과 인접하여 해상을 통한 백제의 북상 및 중국 교류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넷째 백제의 북진을 방어하기가 적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첫째의 사항은 도기동산성의 입지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안성천변의 남쪽에 인접한 구릉지대에 축조되어 있어서 하천을 따라 발달한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몽촌토성에서 금강 유역 사이에 교통로 통제와 보급이 가능한 거점성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도기동산성이 안성맞춤이었다. 즉 성의 규모가 크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위에 넓은 경작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후에 취락이 조성되어 있어서 수취는 물론 노동력 동원의 편리성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거리상으로도 직선상 몽촌토성에서 도기동산성까지는 약 58㎞이고, 여기에서 남성골산성까지 약 80㎞가 넘는다. 따라서, 몽촌토성을 출발하여 성남을 지나 용인을 거쳐 오산 독산성을 지나면서 도기동산성이 중간 기착지로서 적합하고, 여기에서 천안을 거쳐 세종 나성동을 지나면 남성골산성과 대전 월평동 유적까지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기동산성은 휴식과 보급을 위한 寄着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서쪽의 평택을 통한 서해안과 가깝다는 점, 동쪽으로 竹山 죽주산성을 지나 利川 설성산성이나 안성 망이산성으로 진출하기 편리했다.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나제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도기동산성의 사용이 유리했다. 아울러 이 일대는

8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7年條 "秋八月 高句麗圍百濟雉壤城 百濟請救 王命將軍德智 率兵以救之 高句麗衆潰 百濟王遣使來謝."

8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2年條.

8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5年條.

87) 산성이나 보루는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요충지에 축조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긴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산맥도 주로 종방향으로 발달한 경우가 많아 삼국시대 진퇴방향이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산성이나 보루의 입지가 교통로상에 결절지나 협소한 곳,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축조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도 기존에 백제가 운용하던 곳을 재사용하면서 주 방어방면을 수선하는 정도로 이용하고자 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새로 축성하기도 했다.

평야지대로 주위에 높은 산이 없어서 이 성의 북쪽 지점이 해발 78m 정도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이나 동·서쪽을 감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도기동산성 주위는 안성천이 흐르고 있고, 동·서쪽과 남동쪽 그리고 북쪽 지역이 낮은 구릉과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경작지로 이용하기에 좋다. 무엇보다 안성지역을 마한이나 백제가 점유해온 만큼 오랫동안 취락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경작지의 규모와 수확량도 상당히 되었을 것이다. 물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주민들도 남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또는 고구려군에 의해 강제 이주된 주민도 거주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한 예로 도기동 산52번지에서 발굴된 토광묘 1기와 석곽묘 1기는 백제인의 묘제에 고구려계 토기가 부장된 경우인데, 묘의 조성시기는 편년하기가 쉽지 않으나, 호형 토기와 완의 바닥에 성형흔적인 '十'자형 돌대흔으로 보아 고구려 토기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고분은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88] 백제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고구려가 새로운 지배자로 바뀜에 따라 토기 성형방법도 달라졌음을 증명해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사진 5〉 도기동 산52번지 1호 석곽묘 출토 완

〈사진 6〉 도기동 산52번지 5호 토광묘 출토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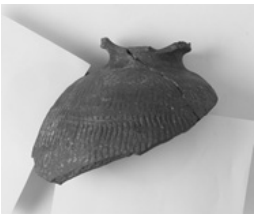
셋째, 남진하던 고구려군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서해로 통하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로서는 서해를 통한 중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시급한 과제였다. 중국으로 가기 위한 대표적인 항구로는 지금의 인천과 화성, 당진, 서산 등이었을 것인데, 웅진으로 천도한 직후 476년과 480년, 484년에 송과 남제로 사신을 파견하려 했으나, 480년에만 성공하고 나머지 두 번은 고구려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만큼 서해를 통한 항해가 어려워졌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백제는 내륙으로 최대한 북상한 뒤에 서해의 항구를 통해 출항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미 화성 당성 일대의 남양만 영해까지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백제는 당진이나 태안의 항구를 이용했을 것이지만, 고구려 수군을 피해 중국으로 갈수 있었던 확률은 1/3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백제는 소나전을[89] 참고로 한다면 직산을 거쳐 서해안으로 접근했을 것이지만, 고구려는 평택과 직산 사이에서 통제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며, 도기동산성은 배후 거점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백제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도기동산성을 점유했던 고구려는 산성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한 뒤, 곧바로 개선 작업을 벌였다. 그 이유는 도기동산성이 안성천 남안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북쪽

88) 세종대학교 박물관, 앞의 보고서, 2016a.
89) 『三國史記』 卷47, 列傳7 素那傳.

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므로, 상대적으로 방어에 취약한 남쪽 성벽을 보강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남쪽 성벽 구간에서는 백제의 목책도 확인되었지만, 고구려의 목책도 방향을 달리하여 축조되었음이 일부 밝혀지고 있다.[90] 다만,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좀더 확실한 구조와 축성방법이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고구려가 이 성을 점유한 뒤에는 기존의 성벽과 다르게 조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91] 이렇게 고구려가 이 성을 점령한 후 성벽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축조한 것으로 보아 다분히 백제의 북진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성 내부에서 조사된 고구려 주거지와 토기편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진 7〉 도기동 465번지 1호 주거지



〈사진 8〉 도기동 465번지 1호 주거지 출토 고구려 토기류

끝으로 도기동산성을 고구려가 점유했던 기간은 고고자료를 통해 5세기 후~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무령왕의 북진시기와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성 내에서 조사된 고구려 주거지와 유물의 수가 현재로선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의 병력이 주둔했었는지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조영한 고분은 얼마나 있을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Ⅳ. 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과 도기동산성 활용

武寧王은 501년 東城王이 苩加에 의해 刺傷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되자, 백제의 제25대 왕으로 卽位하였다. 무령왕은 백제가 熊津으로 천도한 이후 在位에 오른 네 번째 왕으로 생전에는 斯摩王(462~523년)으로 불렸다.[92]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문주왕부터 삼근왕, 동성왕이 모두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하거나 短命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무령왕은 加林城(사적 제4호)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가를 토벌

90) 한양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9.12.
91) 기남문화재연구원 조사구간 중 북쪽 내성 외곽의 북벽6의 경우 고구려 성벽의 구조적 특징인 석축과 목책이 결합된 구조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기동 436-1번지 구역에서도 남쪽 외성구간이 이중목책구조로 나타나고 백제 수혈을 파괴한 후 조성되어 고구려 성벽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6; 기남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309쪽).
92) 무령왕릉 출토 지석(誌石, 국보 제163호)에 의하면, 462년에 출생하여 501년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기 위해 우두성까지 출정하여 토벌하는데 성공하였고, 502년부터 고구려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였다. 처음에는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침략하였고,[93] 달솔 우영과 군사 5천 명을 보내 수곡성을 공격케 하였다.[94] 이처럼 무령왕은 즉위 직후부터 곧바로 고구려에 대하여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에 대한 고구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503년의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 9월, 말갈이 마수책을 불태우고 고목성을 공격하자, 왕이 군사 5천 명을 보내어 이를 물리쳤다.[95]

말갈이 공격한 고목성은 온조왕대 축조되었고, 다루왕 때 말갈이 공격해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말갈이 고목성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의 공격은 약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배후에서 말갈을 활용한 기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507년 10월에 고구려 장수 高老가 말갈과 공모하여 한성을 치려고 했기 때문이다.[96] 이 시기에 말갈은 여전이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무령왕은 군사 5천 명을 보내 격퇴시켰는데, 적지 않은 병력을 출병시킨 것으로 보아 침략해 왔던 말갈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06년 말갈은 백제의 전염병과 기근이 심한 틈을 이용하여 재침략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고목성을 공격하여 함락하는데 성공했다.

○ 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3월~5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과 연못의 물이 말라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7월에 말갈이 침입하여 고목성을 함락하고, 6백여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97]

백제로서는 전염병과 흉년으로 인해 인적으로나 물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가을 추수가 이루어질 무렵에 말갈이 고목성을 침입하여 백성은 물론 식량도 약탈해 갔던 것이다.[98] 이 침략의 의도도 백제가 수곡성이나 고목성 일대를 장악하여 북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백제로서는 연이은 말갈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11월에 고구려까지 침략해 왔으나, 다행히 눈이 많이 내려 철군한 일도 있었다.[99] 무령왕은 말갈과 고구려가 연속해서 침략을 해오자, 이

93)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年條 "冬十一月 遣兵侵高句麗邊境."
94) 수곡성을 공격한 시기는 『三國史記』 백제본기에 501년 11월로 되어 있고, 고구려본기에는 503년 11월로 기록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수곡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新溪縣 古蹟條에 협계폐현이 고을 남쪽 30리에 있고, 원래 고구려의 수곡성현이며 매차홀이라고 전하는데, 지금의 신계군 침교리로 비정되고 있다(손영종, 『고구려사』 1, 백산자료원, 1990). 서영일은 침교리 또는 다율면 구만리로 보기도 한다(서영일, 「삼국 항쟁과 아차산성」, 『아차산성』, 광진구・광진문화원, 2014, 135쪽).
9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3年條 "秋九月 靺鞨燒馬首柵 進攻高木城 王遣兵五千 擊退之."
9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7年條.
97)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6年條 "春大疫 三月至五月 不雨 川澤竭 民饑 發倉賑救, 秋七月 靺鞨來侵 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98) 문안식은 이 시기에 백제를 침략한 말갈이 북한강 유역에 거주하던 집단이고, 마수책이나 고목성 공격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문안식, 『한국 고대사와 말갈』, 혜안, 2003, 89~90쪽).

에 대한 조치로 507년에 고목성 남쪽에 목책을 설치하고, 장령성을 쌓았다.

○ 5월, 고목성 남쪽에 목책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장령성을 쌓아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러자 고구려가 같은해 10월에 말갈과 함께 한성을 공격하기 위해 횡악 아래에서 진을 치니 무령왕이 군사를 보내 격퇴시켰다.[100] 이와 같이 무령왕 즉위 직후부터 7년 동안 백제와 고구려, 말갈은 수곡성과 고목성, 횡악 등에서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대결을 펼쳤고, 백제로서는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령왕은 512년에 벌어진 전투에 親征함으로서 백제 웅진기에서 가장 빛나는 戰勝 기록을 남겼다.

○ 9월, 고구려가 가불성을 함락하고, 다시 군사를 옮겨 원산성을 격파하니 사살하거나 약탈해 간 것이 많았다. 이에 왕이 용감한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위천 북쪽에서 싸웠는데, 고구려 병사들이 백제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업수이여겨 진을 베풀지 않자, 왕이 기발한 계책으로서 기습하여 크게 이겼다.[101]

무령왕이 재위 기간 동안 직접 참전한 전투는 512년 위천에서의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왕의 나이 51세 정도가 되었을 무렵이다. 물론 이밖에도 즉위 직후 백가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우두성까지 출정한 바 있고, 523년 62세의 나이에도 한성까지 가서 쌍현성을 축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지만 친정한 경우는 512년 전투뿐이다.

먼저, 무령왕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512년 전투에 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전까지는 해명이나 우영 같은 신하들을 출전시켜 왔고, 5천 명의 군사를 파견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말갈의 침략은 계속되었다. 결국, 고구려군이 가불성과 원산성을 공격하여 1천여 명을 사로잡아가는 사태가 벌어지자,[102]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무령왕은 고구려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勇騎를 동원하여 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103] 또한, 梁과의 외교관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구려와 동등하게 '征東大將軍'의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무령왕은 고구려와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에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략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군이 두 성을 옮겨가면서 차례로 공격할 정도로 많은 병력을 보냈다는 점에서 최소한 4천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

99)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15年條 "冬十一月 遣將伐百濟 大雪 士卒凍皸而還."

10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7年條 "夏五月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 以備靺鞨, 冬十月 高句麗將高老與靺鞨謀欲攻漢城 進屯於橫岳下 王出師 戰退之."

101)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12年條 "秋九月 高句麗襲取加弗城 移兵破圓山城 殺掠甚衆 王帥勇騎三千 戰於葦川之北 麗人見王軍小 易之 不設陣 王出奇急擊 大破之."

102)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21年條 "秋九月 侵百濟 陷加弗・圓山二城 虜獲男女一千餘口."

103) 백제의 기병 출현은 표비와 목심등자의 발견으로 보아 늦어도 4세기 2/4분기로 추정되고, 5세기에는 백제 지역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5세기에는 갑주로 무장한 소수의 기병과 궁시 또는 장창으로 무장한 다수의 기병으로 편성되었다(柳昌煥, 「三國時代 騎兵과 騎兵戰術」, 『韓國考古學報』 76, 2010).

무령왕에게 있어서 위천[104] 북쪽에서의 전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왕의 출생과 혈통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105] 한강 유역의 漢城은 왕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목숨을 빼앗긴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성왕대까지 고구려에게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결해 오다가 비로소 고구려보다 적은 군사로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친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그동안 실추되어 왔던 왕실의 권위를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백제 한성기 때의 소위 '강국' 위상을 회복했다고 자부할 정도였다. 이렇게 왕이 친정했던 백제 선대 왕은 근구수왕이 377년에 평양성을 공격했던 전투가 마지막이었고, 아신왕이 395년과 398년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했으나, 폭설이나 군영에 유성이 떨어져 철군한 일 이후 처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은 521년 梁에 사신을 보냈을 때,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106] 주장할 정도로 큰 의미를 두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무령왕의 권한은 한층 강화되었을 것이고, 웅진의 귀족들도 왕권에 더 이상 도전하기 힘든 상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 무령왕은 523년 2월에 쌍현성을 쌓기 위해 한성으로 직접 행차하여 좌평 인우와 달솔 사오에게 명령하여 축성사업을 진행시켰다.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무령왕은 5월에 사망하게 된다.[107] 이 성은 무령왕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추진한 축성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전에 이 성을 아신왕대 처음 축조한 바 있고,[108] 개로왕대 수리했었다. 즉 백제 한성기부터 중요시되었고, 개로왕도 고구려의 남하를 대비하여 이 성을 수리했으며, 이곳에서 가까운 곳인 청목령에 大柵을 세워 북한산성의 병사들로 하여금 나눠 지키게 할 정도였다.[109] 따라서, 무령왕은 512년 친정을 승리로 이끌고 난 후 고구려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 쌍현성을 재차 쌓았던 것이다.[110] 이러한 무령왕의 행보는 개로왕과 비슷한 점이 있으며, 개로왕 피살에 대한 원한을 위천 전투를 통해 解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로 쌍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장단군 일대의 쌍령이나 백치 일대의 산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1]

---

104) 위천의 위치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한데, 한강 이북 쪽으로 보거나, 곡교천 또는 미호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정운용, 「한강 유역 회복과 관사성 전투」, 『사비도읍기의 백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장창은, 앞의 책, 2014; 여호규, 「4~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삼국 한강』, 광진문화원, 2015;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105) 무령왕은 혈통 상으로 개로왕의 아들이라는 설과 곤지가 의부라는 설이 있다(노중국, 「백제 웅진도읍기 왕계와 지배세력」, 『백제 웅진기 왕계와 지배세력』, 한성백제박물관, 2018).

10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1年條 "冬十一月 遣使入梁朝貢 先是 爲高句麗所破 衰弱累年 至是上表 稱 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强國."
『梁書』 卷54, 列傳48 百濟條 참조.

107)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3年條 "春二月 王幸漢城 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 三月 至自漢城 夏五月 王薨 謚曰武寧."

108)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阿莘王 7年條 "春二月 以眞武爲兵官佐平 沙豆爲左將 三月 築雙峴城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帥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 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109)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15年條 "冬十月 葺雙峴城 設大柵於靑木嶺 分北漢山城士卒 戍之."

110) 고구려는 쌍현성이 축조된 직후인 8월에 패수까지 남진하여 백제를 압박해 왔고, 성왕이 지충을 보내어 격퇴시킨 바 있다(『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元年條).

111) 쌍현성은 398년에 처음 축성되었고, 469년에 수리하였으며, 523년에 축조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장단군의 망해산 부근 쌍령이나 장단군 강상면 구화리의 임강산성 또는 백치 부근 철마산성 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鄕土서울』 72, 2008, 58쪽; 문안식, 「백제의 평양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172쪽).

그렇다면, 무령왕대 도기동산성을 어떻게 활용했던 것일까?

도기동산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기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6세기대까지 활용되었다. 즉 고구려가 한강 이남으로 남진한 5세기 후엽에 도기동산성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 상태이다. 그리고 백제도 한강이나 죽산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성지역을 거쳐가야 했다.

지리적으로 도기동산성은 웅진 즉 지금의 공주에서 서울 풍납토성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의 동쪽 옆에 위치하는데, 공주 공산성으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60㎞,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약 73㎞이고, 도기동에서 풍납토성까지도 직선거리로 약 60㎞,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좀 더 멀기 때문에 도기동이 거리상 거의 중간쯤에 해당된다.[112] 그렇다면, 고대 전투에서 병력이 하루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12㎞(30리)이고, 경기갑 정도가 빠르게 말을 달렸다고 해도 하루에 24㎞ 정도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113] 따라서, 백제 기병은 공산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몽촌토성까지 최소 4일에서 6일사이에 도착했을 것이다.[114] 그리고 병사와 말에게 휴식과 보급을 위해 3~6곳의 성을 거쳤을 것인데, 그 중간 기착지가 도기동산성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기동산성은 지리적으로 남-북 교통로와 동-서 교통로상으로 중요한 위치해 놓여 있다. 이곳에 성이 축조된 이유는 안성천 남안에 바로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적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며, 옛길이 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와 감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15] 이밖에도 고구려의 유적을 고려한 南進路를 보면, 서울 몽촌토성→성남 판교동→용인 동천동→용인 보정동·마북동→화성 청계동→안성 도기동→세종 남성골산성→대전 월평동유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반대로 한강 이북쪽으로는 서울 아차산·홍련봉 보루군→서울 봉화산 보루→의정부 보루군→양주 보루군→파주 칠중성→연천 호로고루 방면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백제군도 고구려의 남진로를 따라 북상했을 것이다. 물론 이 교통로는 백제가 일찍부터 개척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기동산성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이곳에서 보급을 받은 후 한성 등의 목적지로 향했을 것이다. 백제가 안성지역을 탈환한 이후에는 줄곧 백제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551년 한강 유역을 재차 회복했던 백제가 553년 신라에게 빼앗기면서 안성지역도 내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116]

마지막으로 도기동산성을 백제군이나 고구려군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 이유를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규모면에서 화성 길성리토성보다 작지만, 비교적 큰 성이라

---

11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安城郡條와 卷17 公州牧條에 의하면, 한양-안성까지 거리가 152리(60.8㎞)이고, 공주-한양까지 거리가 323리이므로 안성-공주간 거리가 171리(68.4㎞)이다. 따라서, 도기동산성이 풍납토성과 공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해당된다.

113) 김주성,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軍史』 81, 2011.

114) 물론 정예기병이 최소한의 휴식과 보급만하면서 이동한다면, 2일 내외로 도착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115) 하문식·황보경, 앞의 글, 2016, 603쪽.

116) 물론 현재로선 도기동산성이나 경기 남부지역에서 백제 웅진기에 해당하는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웅진기에 백제가 도기동산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사비기의 토기가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앞으로 웅진기 관련 고고자료가 발견되길 기대해 본다.
신라는 553년 한강 유역에 新州를 설치하였고, 555~565년 사이에 안성지역도 점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기동산성을 거점성으로 사용한 것 같지 않다(황보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7, 198쪽).

는 점이다. 4~6세기대 운용된 성들의 규모는 둘레가 1㎞ 미만인 것이 대부분인데, 이 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내성 규모만 1.4㎞이다. 그리고 성의 남쪽 지역에 주거지와 저장 수혈 등이 조성되어 있고, 토루도 확인되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범위는 더 넓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의 군사들이 軍營을 지어 留宿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둘째, 도기동산성의 입지가 낮은 구릉지대에 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騎兵이 성으로 출입하기가 山頂에 쌓은 테뫼식이나 포곡식 산성에 비해 수월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산성은 산세가 험하고 높은 곳에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병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반면, 도기동산성은 해발도 40~70m로 낮고 지형도 험하지 않아 남쪽으로 출입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안성천이 흐르는 도기동 일대가 평야지대라는 점에서 경작을 통한 식량 생산량이 많았을 것이므로 兵馬의 식량과 말 먹이 보급에 유리한 조건를 갖추고 있다.

넷째, 백제 석곽묘와 토광묘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군사용 무기와 말 재갈과 등자 등이 출토됨에 따라 피장자 중 적지 않은 수가 군인이었다는 점이다. 고분 수가 많다는 점은 도기동산성에 주둔했던 병사들이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부장된 철제 무기와 공구들로 보아 이를 제작하고 수리했던 장인과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군은 언제든지 도기동산성에서 인력 충원은 물론 보급과 무기 및 마구류의 수선도 가능했다.

따라서, 웅진기 백제는 고구려나 말갈과의 전투 때나 무령왕의 한성 행차 때 도기동산성을 자주 이용했다. 고구려군도 이 성의 장점이 여러 가지로 많았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웅진기와 사비에 해당되는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Ⅴ. 맺음말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견과 조사성과는 그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백제의 마한 병합 및 웅천의 위치 문제, 고구려의 남진 영역 범위, 백제 웅진기 한강 유역 영유 문제 등과 직결되는 주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산성의 발견으로 인해 고고학계와 역사학계의 연구자들은 4~6세기를 중심으로 한 삼국의 정세를 보완하거나 재고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웅천에 대한 지명 문제 그리고 마한의 영역, 백제 한성기 때의 영역 확장 등 다양한 관심거리와 연관성이 깊다. 그러나, 현재로선 산성의 정확한 구조와 규모 문제부터 파악해야 되며, 축성기법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주요 사건과 전투 기사를 중심으로 도기동산성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도기동산성은 안성의 거점성 중 하나로 교통로와 취락, 고분군이 갖추어진 유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삼국시대 초기에 안성천이 마한과 백제의 경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영역확장을 추진하면서 안성지역도 복속하여 도기동산성을 축성하였다.

백제가 이 산성을 축성한 목적은 첫째, 한강 이남에서 경기 남부를 거쳐 충남지역으로 진출하기에 적합한 요충지라는 점, 둘째 마한의 잔여 세력을 제압하고 교통로 통제를 하기에 적절한 거점성의 역할, 셋째 안성천 변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에서 식량 생산과 수취 획득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475년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한 이후 대전 일대까지 남진하는 과정에서 이 산성도 점유하였다. 고구려 입장에서 도기동산성이 갖는 장점은 첫째, 안성천 유역을 따라 발달한 동-서 교통로를 통해 나제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수취와 식량 획득이 용이한 평야지대라는 점, 셋째 서해안과 인접하여 해상을 통한 백제의 북상 및 중국 교류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넷째 백제의 북진을 방어하기가 적합했기 때문이다.

무령왕은 재위 초부터 고구려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위천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한성을 수복하면서 도기동산성도 다시 운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연구성과가 진척되길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盧重國, 『百濟政治史硏究』, 一潮閣, 1994.
문안식,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2002.
문안식, 『한국 고대사와 말갈』, 혜안, 2003.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朴淳發,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2001.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2005.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손영종, 『고구려사』 1, 백산자료원, 1990.
李道學, 『백제 고대국가 연구』, 一志社, 1995.
李丙燾,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92.
이부오, 『신라의 영역지배 편성과정과 외위』, 서경문화사, 2019.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정호섭 외, 『한국 고대사 관련 동아시아 사료의 연대기적 집성』, 周留城, 2018.
최몽룡 · 심정보 편저, 『百濟史의 理解』, 학연문화사, 1991.

강종원, 「백제의 서남방면 지출」, 『근초고왕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김길식,「경기남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의의」,『화성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2016.
김영관,「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과 영역」,『한국고대사탐구』34, 2020.
김주성,「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軍史』81, 2011.
김진영,「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高句麗渤海研究』58, 2017.
김창석,「원삼국~한성백제기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지역별 접점」,『접점Ⅲ,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의 고고학적 공간』, 2020.
노중국,「다시 보는 한성백제사」,『한성백제사 다시보기』, 2017.
노중국,「백제 웅진도읍기 왕계와 지배세력」,『백제 웅진기 왕계와 지배세력』, 2018.
노태돈,「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鄕土서울』66, 2005.
柳昌煥,「三國時代 騎兵과 騎兵戰術」,『韓國考古學報』76, 2010.
문안식,「백제의 평양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韓國古代史探究』22, 2016.
박찬규,「문헌을 통해서 본 마한의 시말」,『百濟學報』3, 百濟學會, 2010.
白種伍,「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高句麗渤海研究』35, 2009.
서영일,「漢城時代의 百濟 北方交通路」,『文化史學』21, 2004.
서영일,「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鄕土서울』72, 2008.
서영일,「삼국 항쟁과 아차산성」,『아차산성』, 2014.
서현주,「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안성현,「한성백제기 하남지역 관방체계」,『하남 역사 총서』1, 2019.
양기석,「5~6세기 百濟의 北界」,『博物館紀要』20, 2005.
양시은,『高句麗 城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여호규,「4~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삼국 한강』, 2015.
윤성호,「고구려의 남진의 흔적,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고구려와 한강』, 2020.
李康來,「『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領土問題研究』2, 1985.
이부오,「3세기후반 4세기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한국고대사탐구』28, 2018.
이창엽,「中西部地域 百濟漢城期 木棺墓 變化」,『先史와 古代』27, 2007.
임기환,「『삼국사기』 온조왕본기 영역 획정 기사의 성립 시기」,『역사문화연구』47, 2013.
張彰恩,「新羅 炤知王代 對高句麗關係와 政治變動」,『史學研究』78, 2005.
全榮來,「百濟南方境域의 變遷」,『千寬宇先生還曆記念 韓國史論叢Ⅰ』, 1985.
鄭雲龍,「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1995.
정운용,「한강 유역 회복과 관사성 전투」,『사비도읍기의 백제』, 2007.
정운용,「淸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築造와 運用」,『東北亞歷史論叢』39, 2013.
千寬宇,「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3, 1976.
千寬宇,「目支國考」,『韓國史研究』24, 韓國史研究會, 1979.

최욱진,「아산지역 2~5세기 고대유적의 현황과 의미」,『先史와 古代』55, 韓國古代學會, 2018.
최종택,「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百濟硏究』47, 2008.
최종택,「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高句麗渤海硏究』50, 2014.
하문식·황보경,「안성 도기동 삼국시대 유적의 조사성과와 성격 고찰」,『世界史속에서의 韓國』, 2016.
황보경,「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白山學報』106, 2016.
황보경,「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韓國古代史探究』25,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7.

高麗文化財硏究院,『廣州 昆池岩里 遺蹟』, 2017.
겨레문화유산연구원,『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대전 월평동유적』, 1999.
기남문화재연구원,『安城 道基洞 山城』, 2018.
기남문화재연구원,『安城 道基洞 古墳群』, 2019.
기남문화재연구원,「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11.
누리고고학연구소,『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2017.
서울문화유산연구원,『광주 곤리암리Ⅰ유적』, 2016a.
서울문화유산연구원,『광주 곤리암리Ⅱ유적』, 2016b.
서울문화유산연구원,『안성 도기동 465번지 유적』, 2018.
세종대학교 박물관,『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2016a.
세종대학교 박물관,『안성 도기동 산51-3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2016b.
우리文化財硏究院,『廣州 昆池岩里 156番地 遺蹟』, 2017.
中部考古學硏究所,『華城 吉城里土城』, 2013.
中央文化財硏究院,『安城 道基洞遺蹟』, 2008.
中原文化財硏究院,『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8.
忠北大學校 博物館,『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한신대학교박물관,『華城 吉城里土城Ⅰ』, 2010.
한양문화재연구원,「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12.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3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he Situations of the Three Kingdoms in the 3rd and the 6th Centuries and the Dogi-dong Sanseong Fortress

HwangBo, Kyung*

Dogi-dong Sanseong Fortress in Anseong was recognized for its academic and cultural significance as it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historical site upon discovery. This fortress took the attention as it was built and used by Baekje and Goguryeo, and has significance in that it was built with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such as wooden fence, earthwork, and stonework. Also, residential and production facilities of Baekje and Goguryeo and various kinds of ancient tombs were excavated inside and around the fortr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o far, it is assumed that Dogi-dong Fortress had been built in the 4th century and used until the 6th century.

Anseongcheon Stream was the boundary between Mahan and Baekje in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and Dogi-dong Sanseong Fortress was one of the strongholds in Anseong, which is essential in that it was equipped with transportation routes, residential villages, and ancient tombs. Baekje promoted the expansion of the area in the 3rd and 4th centuries in full scale and incorporated Anseong area where they built Dogi-dong Sanseong Fortress.

Baekje constructed this fortress for three purposes: first, it was a suitable hub for entering Chungnam area through southern Gyeonggi Province. Second, it took a role of a stronghold to dominate Mahan's remaining power and control traffic routes. Third, it could produce and collect food through the plain fields developed along with Anseongcheon Stream.

After conquering Hanseong in 475, Goguryeo occupied the fortress in moving southward to Daejeon. The advantages of Dogi-dong Sanseong Fortress from Goguryeo's perspective were that it could simultaneously give pressure on Baekje and Silla through East-West transportation routes along Anseongcheon Stream and that it was a plain area easy to obtain food, and that it was also advantageous to control Baekje's northward advance and trade with China indirectly.

King Muryeong believed that he had led the battle in Wicheon Stream to victory in confronting

* Curator Supervisor, Sejong University Museum

Goguryeo from the beginning of his reign and restored Dogi-dong Sanseong Fortress. Therefore, Dogi-dong Sanseong Fortress was operated from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to Woongjin Period. Also, Goguryeo was occupied for a certain period to prevent Baekje from moving north.

[Keywords] Anseong, Dogi-dong Sanseong Fortress, Anseongcheon Stream, Baekje, Goguryeo, Mahan